‘나는 이렇게 속았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최근 광주시 산하 어느 기관장은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기자 클럽의 아무개 기자라 했다. 그는 대뜸 무슨 책을 사 달라고 했다. 말투가 아주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그 기관장은 금방 눈치를 채고 점잖게 나무랐다. 전화 속의 남자는 슬그머니 수화기를 내려놨다. 언론사 난립 속에 ‘게나 고동이나’ 기자랍시고 나대는 세상이긴 하다. 한데 좁쌀만도 못한 권력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자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 놀랍다. 게다가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들도 더러 있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아주 어렸을 때(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쯤?) 읽었던, ‘나는 이렇게 속았다’라는 책이 생각난다. 그 책에는 이 세상의 온갖 사기 수법이 총망라돼 있었다. 꽤 두툼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각종 사기 사건을 죄다 모아 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조숙했던 데다 한창 사춘기에 읽어서인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은 성(性)에 관련된 것들뿐이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잔존해 있던 당시, 아들을 낳게 해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어느 용한 점쟁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전직 시장 그를 위한 변명

점쟁이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찾아오는 아낙네들에게 어이없게도 ‘계란 요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여인의 알몸에 계란을 굴려가며 마사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웃옷만 살짝 올려 보라는 요구에도 주저주저하던 여인들은 아들을 낳고자 하는 절실함 때문에 점쟁이의 온갖 교언(巧言)에 넘어가 결국 치마까지도 벗는다. 점쟁이는 어느 정도 계란 마시지를 하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여인의 몸을 덮친다.

그 사기꾼 점쟁이가 아들을 잘 낳게 해 준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기 사건이자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여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아들 하나 갖고자 하는 욕망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엊그제 전직 광주 시장이 재직 시절 문자에 낚여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온통 시중의 화제가 됐다. 피해자는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다.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했다는 사기범 김모(여·49) 씨는 지난해 12월 이 지역 유력 인사 1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권양숙입니다.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주시면 곧 갚겠습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할 때 ‘급하다’고 하면서 그 수령 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다. 마치 홈쇼핑 방송에서 ‘매진 임박’이나 ‘기회는 오늘 하루뿐’이라고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과도 흡사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 10월 초까지도 윤 시장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기꾼을 권 여사로 철석같이 믿고 송금 후에도 수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피해액은 무려 4억5000만 원. 윤 시장은 의사 출신인 데다 4년의 시장 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3억5000만 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두 곳에서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한다.

윤 시장은 어쩌다 이런 어이없는 사기 사건에 그처럼 쉽게 넘어간 것일까. 여러 추측들이 많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그의 품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부인도 모르게 수천만 원씩을 빌려서까지 필요한 곳에 쾌척한 뒤 나중에 벌어서 갚곤 했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그로서는 권 여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그냥 못 본 체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사기를 당했던 시점을 볼 때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자금 아니었나 의심하기도 한다. 당시 윤 시장은 재선(再選) 출마를 놓고 경쟁하던 터였다. 따라서 친노·친문 등 민주당 핵심 그룹에 영향력을 가졌을 법한 권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단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검은 돈’이었다면 사과 박스 같은 것도 있는데 어찌 내놓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통장으로 송금했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통장 송금은 언젠가 계좌 추적만 해도 다 드러날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 전달 수단으로 더없이 좋은 사과 박스(가로 50㎝, 세로 25㎝, 높이 24㎝) 한 상자면 5만 원권으로 6억 원까지도 채울 수 있다는데 말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랴

순천 출신인 사기범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윤 시장의 선거 캠프에도 들락거렸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가 사기 전력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은 생초보였다”고 말한다. 대포폰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했고, 가족의 통장을 버젓이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실명으로 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준 배경에는, 상대방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철저히 믿게끔 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저 어리숙한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까지 이용한 고도의 사기 수법이지 않았을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기 사건이 늘어난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아니라 문자를 이용한 ‘레터피싱’(letter phishing)이라 하겠지만, 갈수록 보이스피싱으로 멀쩡한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30대 젊은 층의 피해가 전체의 24%로 노년층 19.8%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 남녀노소 모두들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재직 기간 동안 상품권 한 장 받지 않을 정도로 청렴했다는 ‘시민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 조심하자’는 뻔한 결론으로 글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걸 왜 몰랐을꼬. 결코 양서(良書)라고는 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속았다’라는 책 한 권만 읽었어도 그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반성없는 일본 “매우 유감·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반발…한일관계 파열음 커질 듯

한 달 만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또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경색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첫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화로 악화 일로인 한일관계에 부담이 더해진 것이다.

대법원이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 판결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도 한국 사법부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 판결들로 한일관계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며 도발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와중에 이번 판결까지 더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장관의 방일 가능성과 관련, 지난 26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210억 긴급 지원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포함한 2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사이 폭염으로 연안 표층수온이 28~30℃를 상회하고 1일 수온차가 3~4℃ 이상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남 7개 시·군 553어가에서 어패류 등 5410만 마리가 폐사, 총 47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업재해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시·군에서 복구계획 수립, 도에서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피해 복구액은 339어가, 총 210억원(국비 61억원·도비 13억원·시군비 13억원·융자 74억원·자비 부담 49억원)이다.

긴급 지원액은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어류, 전복 등 수산생물 입식비로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원한다. 또, 피해어가 중 215어가에 대해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추가 혜택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89어가는 보험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머지 않아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기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들을 하게 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대한 행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건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6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리려다 북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된 뒤 이달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은 북한 측에 ‘28일까지 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측이 아직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제재완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북미 간 표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발언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아직 확실히 잡히진 않았으나 긍정적 전망을 갖고 이른 시간 내에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계속 추진해 나가겠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시간표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 등 매입함. · 인접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매매 – 6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조선이공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1. 초빙내용

구분	학과	초빙분야	인원	세부자격요건
정년계열	특전부사관과	군사학	1명	· 20년 이상의 군 경력과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 군사학, 행정학, 정치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위논문의 제목은 군사학 분야로 함
	식품영양조리과학과	식품조리 및 분석	1명	
비정년계열(교육중점교원)	기계과	기계공학	1명	· 용접 가능자
	기계설계과	기계설계	1명	· 2D·3D CAD 가능자
	전기과	전기공학	1명	· PLC 가능자
	전자과	전자공학	1명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경영학	1명	
	생명환경화공과	화학공학	1명	· 석유제품생산(공업화학), 유기화학 등의 전공자
계			8명	

2.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교「교원채용규정」제4조(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정년계열 지원자) 또는 우리대학교「교육중점교원임용규정」제2조(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비정년계열 교육중점교원 지원자)
나. 초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특전부사관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지원(합격)이 제한 될 수 있음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8.12.17.(월) ~ 12.19.(수) 09:00~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18년 12월 19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팀(대학본부 1층)
4.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나. 학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 첨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증명서에는 담당직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라. 대학·전문대학 전임교원 경력자인 경우
-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확인서
마. 산업체 경력자인 경우(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 근로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 사업주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체별로 각 1부
바. 민간산업체 근무 경력자인 경우(추가)
- 산업체 업종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산업체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근무한 산업체가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산업체별 각 1부 (근무당시의 산업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 자기소개서, 학과발전계획서 각 1부 (소정양식)
아.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 요약문 각 1부 (소정양식)
자.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 인쇄물(학위논문 포함) 각 1부
차.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 파일(한글파일, 학위논문 포함) 각 1부
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5.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하나의 초빙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임용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로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라.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은 지원자가 지정한 10편까지의 대표실적만 심사하며, 10편 이상 제출한 경우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된 순서로 심사함(저서는 2권까지만 인정)
-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5.11.30.~2018.11.30.)에 발표(출판)된 연구실적만 인정함
- 연구실적물이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로 판단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마.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공개강의 주제와 심사대상자는 공개강의심사 2일전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하며, 외국어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함
바. 교원채용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바람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반환청구 신청절차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아. 임용 후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30KM 이내) 거주가 가능해야 함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 및 교원채용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름
6. 임용조건 가. 임용직위 : 조교수 나. 임용예정 : 2019학년도 1학기 임용(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담당부서 :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팀
나. 전화번호 : (062) 230-8040, 8044
다. 팩스번호 : (062) 234-8304
라. 홈페이지 : http://www.cst.ac.kr
2018. 11. 30.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